

전장에 반대하는 여/聲

‘전쟁에 반대하는 여/聲’활동단을 제안합니다.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저 먼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내가 ‘남의 일’이라고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전쟁이 왜 일어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이유는,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최신 무기의 성능과 공격 작전 계획을 보고 들으며 몸서리치는 이유는,

이번 전쟁은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을 보며

과연 정당한 전쟁이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내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전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합니다.

언제나 이등국민의 위치에 있는 나이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전쟁 시 여성에게 국가란 의미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인 내가 전쟁을 겪게 된다면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는 것이나 미사일에 맞아서 죽는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될 강간에 대한 공포가 더 클 것이며, 그것이 단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이 진정 두려운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더욱 묻히고 들리지 않으며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바라는 자, 전쟁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자, 전쟁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커져가는 때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반대한다면, 평화를 원하고 있다면, 폭력에 저항하고 싶다면, 오히려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평화를 나타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폭력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 가장 큰 공포와 억압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소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었다는 것을. 정당한 전쟁  
혹은 명분 있는 전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